



박지성 필필 날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22일(한국시간) 오전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역전 결승골을 터뜨린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적 리버풀전서 헤딩 결승골... 시즌 3호, 맨유 선두 견인

‘산소 탱크’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속적’ 리버풀과 맞대결에서 맨유의 승리를 확정하는 통쾌한 헤딩 결승골을 터뜨렸다.

박지성은 22일(한국시간) 새벽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แทร퍼드에서 열린 리버풀과 2009-201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홈경기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1-1로 맞선 후반 15분 대런 플래처가 크로스를 올려주자 문전으로 몸을 날리는 다이빙헤딩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 11일 AC밀란(이탈리아)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해키골을 사냥하고 15일 풀럼과 경기에서 첫 도움을 기록했던 박지성의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박지성이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작성한 건 맨유 입단 첫해였던 지난 2005-2006시즌 이후 개인통산 두 번째다. 지난달 1일 아스널과 경기에서 마수결이 골을 신고했던 박지성의 정규리그 2호골이자 시즌 3호골이다.

맨유는 올 시즌 원정 0-2 패배를 포함해 3연패를 안겼던 리버풀과 안방 대결에서 전반 5분 페르난도 토레스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전반 12분 터진 웨인 루니의 페널티킥 동점골과 박지성의 역전골을 앞세워 2-1 승리를 누렸다.

이로써 맨유는 시즌 22승3무6패(승점 69)로 아스널(승점 67)을 2위로 끌어내리고 선두 자리를 탈환했다. 맨유는 리버풀과 역대 상대전적에서도 통산 69승50무6패로 근소한 우위를 지켰다.

반면 4위 진입을 노리는 리버풀은 맨유전 3연승 행진을 중단했고 시즌 15승6무10패(승점 51)가 됐다.

전날 아스널에 선두 자리를 내준 맨유와 5위로 내려앉은 리버풀은 ‘붉은 장미의 전쟁’으로 불릴 만큼 대표적인 라이벌 관계를 의식한 듯 양팀은 경기가 시작되자 치열한 탐색전을 벌였다.

이날 동점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 골 행진을 벌인 루니는 시즌 26호 골로 디에고 드로그바(첼시·21골)를 다시 골차로 따돌리고 리그 득점 부

■ ‘빅매치 승부사’ 박지성 인터뷰

“볼턴전 청용이 자살골 넣어주면 좋겠다”

박지성이 22일 ‘속적’ 리버풀과 맞대결에서 소속팀의 승리를 확정 짓는 통쾌한 헤딩 결승골을 터뜨리고 나서 기쁨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박지성은 헤딩 결승골을 넣을 때 상대 수비수 글렌 존슨의 스타드에 왼쪽 머리를 맞는 바람에 피를 흘리고 경기를 뛰는 부상 투혼을 발휘했고 경기 후 한 바늘을 꿰뚫었다. 맨유는 박지성의 역전 결승골 덕에 리그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

다음은 박지성과 일문일답.

- 리버풀을 상대로 처음 골을 넣었다. 의미가 남다른 텐데.
- ▲이겨야 하는 경기였다. 승점 3점이 절실한 상황에서 팀이 앞서나갈 수 있는 골을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결승골로 이어져 기분이 좋다.
- 가슴을 치는 세리머니를 펼쳤는데.
- ▲특별한 의미는 없다. 골을 그렇게 많이 넣는 선수도 아니고, 매 경기 골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세리머니도 특별히 준비하지는 않았다.
- AC밀란과 경기 때 피를 흘려 전담 마크했다. 이번에도 마스체라노에 대한 특별한 지시를 받았다.
- ▲마스체라노의 움직임은 조금 더 체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피를 흘

처럼 전담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신경을 썼다.

- 득점 순간에 충동이 있었다. 편찮은가.
- ▲왼쪽 머리 부분이 살짝 찢어졌다. 한 바늘을 꿰뚫었다.
-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었다. 포지션에 따라 소모되는 체력이 다른가.
- ▲큰 차이는 없다. 측면이나 중앙이나 체력적으로 힘든 것은 같다.
- 다음 상대는 볼턴이다. 이청용 선수가 ‘살살하자’고 했는데.
- ▲볼턴은 강등권을 탈출했다고 본다. 우리는 우승 경쟁을 하는 처지인데, (이)청용이가 자살골을 한 골 넣어주길 바란다.
- 이청용과 맞대결을 펼치는 의미는.
- ▲한국 선수들과의 대결은 항상 특별하다. 내가 맞붙은 한국 선수 중 가장 어렵다.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많은 기대를 한다.
- 경기를 앞두고 ‘복수전 성격을 가진다’고 했는데, 시원한 설욕을 했다고 보나.
- ▲승리를 했기에 충분히 복수를 했다고 본다. /연합뉴스

아디다스, 유소년축구 한국대표팀 모집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는 스페인 세계유소년축구대회에 참가할 한국대표팀을 2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UEFA Young Champions 2010 Road to Madrid’라는 이름으로 5월19일부터 2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세계유소년축구 대회에는 전세계 40여개국의 축구 꿈나무들이 참가해 우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이 대회에 참가할 한국 대표를 뽑는 선발전은 다음달 24~25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축구장에서 열린다. 중등부(만 12~14세)의 6인(교체 선수 1인 포함)이 팀을 구성해 출전할 수 있다. 우승팀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펼쳐지는 세계 대회의 한국대표로 출전하며, 이에 필요한 항공, 숙박 등 경비 일체를 아디다스로부터 제공받는다. 준우승 팀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상품권이, 3위 및 아디다스 서포터스상에 선정된 팀에게는 각각 100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제품이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전국 아디다스 직영점 및 대리점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문의 02-501-2388~9. /연합뉴스



문 선수를 질주했다. 박지성은 87분을 뛰고 나서 후반 42분 홈팬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풀스콜스로 교체돼 그라운드를 나갔고 맨유는 수문장 판데르사르의 선방 속에 1점차 역전 승리를 안성했다. /연합뉴스

첼시, 블랙번과 무승부...맨유와 승점 4점차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가 블랙번과 비기면서 2009-2010 프리미어리그 선두 다툼이 더 불만해졌다.

첼시는 22일(한국시간) 영국 블랙번의 이우드파크에서 열린 블랙번과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20승5무5패가 된 첼시는 승점 65점에 그치면서 승점 69점(22승3무6패)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격차가 4점이 됐다. 2위 아스널이 승점 67점(21승4무6패)인 가운데 첼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널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아직 어느 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맨체스터시티는 풀럼과 원정 경기에서 2-1로 이겼다. /연합뉴스



아르헨 간판, 메시 2경기연속 해트트릭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한국의 B조 2차전 상대인 아르헨티나의 간판 공격수 리오넬 메시(23·FC바르셀로나·사진)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서 골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메시는 22일(한국시간) 스페인 사라고사의 에스타디오 라 모네타에서 열린 레알 사라고사와 2009-2010 프리메라리가 27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전반 5분과 후반 21분, 33분 릴레이 골을 터뜨리며 4-2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 15일 발렌시아와 경기에서 세 골을 사냥한 데 이어 정규리그 두 경기 연속 해트트릭. 지난 18일 VfB 슈투트가르트(독일)와 경기에서 2골을 뽑은 것까지 포함하면 3경기에서 8골을 터뜨린 대단한 골 행진이다. 정규리그에선 총 24경기에서 25골로 경기당 평균 1골 이상을 뽑았다.

메시는 시즌 25호골로 곤살로 이과인(레알 마드리드·20골)을 다섯 골차로 따돌리고 리그 득점 부문 선두를 질주했다. /연합뉴스

‘탱크’ 최경주

1타차 준우승

PGA 트랜지션스 챔피언십

‘탱크’ 최경주(40)가 2개 대회 연속 준우승의 ‘부활 샷’을 선보이며 마스터스 출전권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최경주는 2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베이시의 이니스브룩 골프장(파 71·7340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트랜지션스 챔피언십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7타를 쳤다.



13언더파 271타로 우승을 차지한 짐 퓨릭(미국)에 불과 1타 뒤진 준우승을 차지한 최경주는 시즌 첫 ‘톱10’ 입상보다는 마스터스 출전권을 따려면 꼭 필요한 세계랭킹 상승이 더 고무적이었다.

2003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마스터스 무대에 섰던 최경주는 마스터스 개막 전까지 세계 랭킹을 50위 이내로 끌어올려야 올해 대회에도 나갈 수 있다. 최경주는 유럽프로골프 투어 말레이시아오픈 준우승으로 96위에서 7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 이번 대회 2위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47위까지 순위가 오를 전망이다.

마스터스 개막 전까지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과 셀 휴스턴 오픈 2개 대회가 남은 가운데 최경주는 현재 순위만 유지해도 8년 연속 마스터스 출전이 가능하다.

한편 퓨릭은 2007년 7월 캐나다오픈 이후 3년 만에 개인 통산 투어 14승계를 거뒀다. 위창수(38·테일러메이드)가 3언더파 281타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